

# “감굴로 와인을? ‘고정관념’ 깨고, G20 공식 건배주 명성”

## Q 르포 | 삼다수 마을 속 ‘제주양조장’ 가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마을’로도 잘 알려진 이곳에 좋은 물과 제주서 나는 감굴 등으로 와인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제주양조장이 있다. ‘술익는 마을’이다.

입구에는 ‘1950 제주양조장’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1950’이란 숫자가 한라산 높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1950’은 한라산 정상 높이인 1950m를 의미하는 게 맞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밟을 수 있는 ‘정상’을 의미하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합해 브랜드를 ‘1950 SEE TOU AT THE TOP’이라고 했다.” 입구에서 만난 제주양조장 박종명 대표의 설명이다.

브랜드 네이밍에 ‘정상(THE TOP)’이란 의미를 담은 박 대표의 선견지명은 통했다.

2010년 회사를 설립하고 출시한 와인이 바로 그 해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건배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제주양조장에서 만드는 와인(화이트와인)은 제주 토종 와인의 대명사가 되다 시피 했다.

와인의 재료는 다름아닌 제주에서 나는 감굴이다. 감굴로 와인을 만든 것은 제주양조장이 처음이다.

“초기엔 감굴로 무슨 와인을 만드느냐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가장 어려웠다. 껍질을 벗기면 오일 성분

2010년 설립, 그해 G20 건배주로 화이트와인 ‘제주 토종와인’ 대명사 샤인머스켓 이용 포도와 와인 개발중

지역원료 100% ‘지역 특산주’ 인정 양조장 증설, 생산량 10배 확대 추진 박종명 “양조장, 지자체 관심 절실”

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포도와 달리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 감굴로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은 농촌진흥청 감굴연구소가 개발한 것을 이전받았다. 이후로도 농진청이 꾸준히 도움을 줬다. 캐나다 등에 가면 사과와인은 선물로 잘 사오면서 감굴와인은 안된다는 생각을 없애고 싶었다. 정상회담때 건배주로 선택받으며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대표의 안내로 실제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 내부로 들어가니 코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는 술 익는 향기다.

“우리 양조장엔 현재 용량 3399리터(1) 짜리 통(조) 3개가 있다. 이들은 발효조, 숙성조, 제성(알콜 도수·감미도를 맞추는 과정)조로 각각 쓰인다. 이 정도 크기면 국제청 기준으로 농가 보급형 시설에 속한다. 각각의 조 내부는 제주산 참나무로 제작한 오크통이 들어 있다. 지금은 샤인머스켓와인을 만들기



제주양조장 입구 전경.

위해 열흘 정도 발효를 하고 있다.”

샤인머스켓 역시 현재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물을 쓴다. 물론 감굴도 100% 제주산이다.

박 대표는 “포도와인은 반드시 하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이 감굴와인을 만들면서 포도와인은 왜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전 제주 감농협 작목반에 속한 16개 농가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어 재료 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맛도 기대가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포도와인까지 생산하면 제주양조장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감굴과인 그리고 천혜향와인에 이어 3번째 제품을 내놓게 된다. 와인은 750ml와 80ml 미니어처로 각각 판매하고 있다.

“와인은 현재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80% 이상 쓰면 ‘지역 특

그는 “지금의 양조장 크기로는 750ml 기준으로 연간 4만병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되질 않는다. 올해 생산량은 4만7000병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들어가는 감굴의 양도 연 40톤(t) 정도다. 4만t 정도는 써야 뛰가 되도 된다. 그래서 내년엔 양조장을 이전해 증설하려고 한다. 허가도 다 받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에 산이 아예 끊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 대표는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27개 양조장이 있다. 면적 기준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조장이 분포해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양조장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특산주는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잘 되고 있는 안동소주를 보라.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

박 대표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 파산법을 전공했다.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있다. 교수님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술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파산법무를 할 때 매각 채권중에 감굴밭이 있었다. 그냥 버려지는 감굴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다. (미소) /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박종명 제주양조장 대표가 감굴로 만든 화이트와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산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100% 사용하고 있다. 제주에 있는 신라면세점이나 호텔, 리조트에서도 우리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

박 대표는 와인 생산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동시 진행’

중기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홍수 등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재취업·창업 활동시 실업급여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홍수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한다.

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동반성장위-롯데百貨, 협력사 ESG지원 협약

상생협력기금 출연, ESG 컨설팅 제공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백화점이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동반위에 따르면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롯데백화점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협력사 ESG 전반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KCC “뭉찌빠 댄스챌린지 참여하세요”

아이패드·로보락청소기 등 경품

세상을 바꾸는 ‘컬러의 힘’이 신나고 활력 넘치는 ‘댄스의 힘’과 만났다.

KCC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7일까지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는 댄스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KCC페인트, #컬러풀챌린지, #뭉찌빠댄스)와 함께 업로드하면 응모가 끝난다.

응모한 영상은 ‘댄스의 완성도’, ‘창의성’, ‘열정’, ‘재미’ 등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아이패드 에어11 ▲로보락청소기 ▲갤럭시 버즈3 ▲네이버페이 1만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CC는 지난달 페인트 유튜브 광고를 통해 장기간 선보인 시크하면서 중독성 있는 내레이션을 활용해 신나는 비트에 맞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



KCC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 영상 캡처화면.

라 할 수 있는 뭉찌빠 댄스를 개발했다.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뭉찌빠 댄스’가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뭉찌빠 댄스’로 고객들이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품질강화 나서

중소레미콘업계, 결의문 채택

중소레미콘업계가 제주에서 ‘2024 레미콘 경영혁신 포럼’을 열고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 및 품질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업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중글래드에서 레미콘경영혁신포럼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진행한다. 11회째를 맞은 경영혁신포럼은 레미콘업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올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주제로 최근 어려워진 레미콘업계의 위기를 과거의 경험과 업계의 화합을 토대로 새롭고 가치있는 동행을 통해 극복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포럼에 참가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자 일동은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와 품질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관급레미콘의 최우선적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기관 불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조웅 레미콘조합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부진한 건설경기 속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 품질에 대한 책임과 불신을 신뢰로 바꾸려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